

성서 히브리어 명사 문장에서의 한정성에 관한 연구

-앤더슨, 제네트, 글리너트의 이론을 중심으로-

권성달*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성서 히브리어에서 명사 문장은 동사 문장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성서 히브리어 학자들은 지난 수십 년간 성서 히브리어 명사 문장에 관한 연구를 해 왔다.¹⁾ 그러나 학자들은 그동안 많은 부분에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무엇보다 명사 문장의 정의부터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²⁾ 이렇듯

*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연구교수, 구약학.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KRF - 2009 - 332 - A00053).

- 1) 본 연구에서는 독립절뿐 아니라 종속절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문장’(sentence)이라는 용어보다는 ‘절’(clause)이라는 용어가 보다 정확한 용어라 할 수 있으나 성서 히브리어 학계에서 포괄적으로 ‘문장’이라는 용어를 선호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문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2) 본 연구에서는 ‘명사 문장’(nominal sentence)을 소위 ‘동사 없는 문장’(verbless sentence)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 즉 본 연구에서의 명사 문장이란 형태적으로 동사를 포함하지 않은 문장 중 주어와 술어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혹은 그 중 하나가 생략된 문장)을 말한다. 성서 히브리어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동사 없는 문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러한 표현보다는 사실 ‘하야(הָיָה = to be) 없는 문장’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명사 문장은 심층적으로 볼 때 히브리어 ‘하야’가 생략된 문장이며 의미론적으로 ‘하야’는 동사인 경우도 있지만 동사가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수 17:1 -הָיָה אִישׁ מִלְּהִיבָה 그는 전사였다-에서 ‘하야’는 자체적인 의미가 없으므로 심층적으로 볼 때 동사가 아니다.). 성서 히브리어 학자들 중 니카치와 쯔비와 같은 학자들은 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동사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이라도 동사가 문두에 오지 않는 모든 문장을 ‘명사 문장’으로 취급하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시각을 분명히 반대한다. 그러한 견해는 아랍 문법가들의 영향을 깊게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을 보라. A. Niccacci, “Types and Functions of the Nominal Sentence,” C. L. Miller, ed., *The Verbless Clause in Biblical Hebrew Linguistic Approaches* (Indiana: Eisenbrauns, 1999), 214, 227, 238; T. Zewi, “The Nominal Sentence in Biblical Hebrew,” G., Goldenberg and S. Raz, eds., *Semitic and Cushitic Studies* (Wiesbaden: Harrassowitz, 1994), 150.

정의에서부터 견해 차이가 있는 가운데, 명사 문장에서의 단어 순서, 세 구성원 명사 문장, 계사(copula) 문제, 격걸림 문장(casus pendens), 존재 문장, 명사 문장과 ‘하야’(=to be) 문장³⁾과의 연관성 문제 등 성서 히브리어 명사 문장은 풀어야 할 숙제가 아직도 많이 산재해 있다.⁴⁾ 특히 명사 문장에서 주어와 술어를 선정하는 일은 수많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기초 단계라 할 수 있다. 주어와 술어가 선정된 후에야 단어 순서에 관한 논의가 가능하며 그와 관련된 제반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단어 순서가 고정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성서 히브리어 명사 문장에서 주어와 술어의 정체 파악은 매우 중요하다. 주어와 술어의 정체 파악은 주어진 문장이 정상적인 문장인가 혹은 강조 등과 같은 특별한 목적이 있는 문장인가 하는 문장의 역할에 대한 파악과 연관되며 이에 따라 성서 해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וְיָהוָה אֵלֵינוּ (출 9:27)

예를 들어 위의 문장은 ‘고유명사(여호와)+한정 명사(의로운 자)’로 구성된 명사 문장으로 주어와 술어의 선정에 따라 크게 두 가지의 해석, 즉 ‘여호와는 의로우신 분이시다’와 ‘의로우신 분은 여호와시다’가 가능하며 정상적인 단어 순서의 여부에 따라 강조점을 붙인 문장, 즉 ‘여호와^는 의로우신 분이시다’ 혹은 ‘의로우신 분^은 여호와시다’가 가능할 수 있다.

성서 히브리어 학자들은 성서 히브리어 명사 문장에서 주어와 술어의 정체 파악에 대한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해 왔다. 그 기준은 다음 네 가지 정도이다.

- (1) 일반적인 주어, 술어의 정의에 따른 기준
- (2) 주어진/새로운 정보 기준
- (3) 한정성 기준⁵⁾
- (4) 단어 순서 기준

3) 여기서 ‘하야 문장’이란 성서 히브리어의 문장 중 어근 헤(ה), 요드(י), 요드(י)를 포함하는 모든 문장을 뜻한다.

4) 성서 히브리어 명사 문장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논의를 위해서는 다음을 보라: C. L. Miller, ed., *The Verbless Clause in Biblical Hebrew Linguistic Approaches* (India: Eisenbrauns, 1999).

5) ‘한정성’(definiteness)이란 ‘한정’(definite)의 정도나 등급을 뜻하는 것으로서 ‘한정성’을 주어와 술어에 연결시켜 논하는 이들은 일반적으로 ‘한정의 등급’, 즉 ‘한정성’이 높은 것을 주어로 분류하고 ‘한정성’이 낮은 것을 술어로 분류한다. 그러나 ‘한정성’의 높고 낮음, 즉 한정성의 등급 매김의 결정에 있어서는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보다 자세한 것은 2.1항 ‘한정성의 의미’를 보라.

일반적으로 성서 히브리어 학자들은 첫 번째, 두 번째 기준은 받아들이고 있으나 세 번째, 네 번째 기준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하다. 성서 히브리어 명사 문장에서 주어, 술어의 정체를 파악함에 있어서 위의 첫 번째, 두 번째 기준으로는 약 90% 정도가 해결되나 10% 정도는 주어, 술어 파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⁶⁾

첫 번째 기준인 ‘일반적인 주어, 술어의 정의에 따른 기준’에서 주어는 ‘무엇에 관해 말하는가’에 대한 언급이며 술어는 ‘주어에 대한 의미론적 의사전달’, 즉 ‘그것에 대해 무엇이라 말해지는가’이다.⁷⁾ 이 첫 번째 기준은 두 번째 기준인 ‘주어진/새로운 기준’과 일맥상통한다.⁸⁾ 첫 번째 기준에서 ‘무엇에 관해 말하는가’ 하는 것은 대개 주어진 정보, 혹은 알려진 정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어와 술어가 모두 ‘주어진(알려진) 정보’일 경우 첫 번째 기준뿐 아니라 두 번째 기준으로도 주어와 술어를 파악하기 까다로운 경우가 많다.

네 번째 기준인 ‘단어 순서 기준’은 학자들 간에 이견이 가장 많으며 오랫동안 토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단어 순서’를 주어와 술어의 선정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느냐에 대한 견해조차도 통일을 이루고 있지 못하다. 대부분의 현대 언어에서는 단어 순서에 있어서 주어가 술어보다 선행하므로 주어/술어를 파악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으나 성서 히브리어 명사 문장은 단어 순서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⁹⁾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한정성 기준을 제시한 히브리어 학자들의 의견을 살펴보았다. 한정성에 관한 연구는 언어학계에서도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한 분야이며, 또한 성서 히브리어 학계에서는 아직 연구가 미비한 분야

6) 성서 히브리어 학자들은 때로 한 문장에 대한 주어와 술어의 선정을 놓고도 오랜 기간 격렬한 토의를 하는 것을 본다. 따라서 10%라는 수치는 무시할 수 없는 높은 수치이다.

7) 주어와 술어라는 범주 내에서도 문법적(통사적) 주어/술어, 심리적 주어/술어, 논리적 주어/술어에 대한 논의로 들어가면 복잡해지므로 여기서 주어/술어의 용어는 통사적인 용어에 국한시켜 적용하고자 한다. 또한 용어 사용에 있어서도 영어의 subject/predicate라는 용어보다는 topic/comment, theme/rheme 이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이들이 있다. ‘주어’라는 용어보다는 ‘주제’나 ‘화제’라는 용어가 성서 히브리어에서는 더 어울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주어/술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그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8) R. Buth, “Word Order in the Verbless Clause: A Generative-Functional Approach,” C. L. Miller, ed., *The Verbless Clause in Biblical Hebrew Linguistic Approaches* (Indiana: Eisenbrauns, 1999), 80; T. Zewi, “The Nominal Sentence in Biblical Hebrew,” 145 등을 보라.

9) 성서 히브리어 명사 문장에서의 단어 순서에 관한 논의는 매우 중대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많은 학자들이 심도 있게 다루지는 못하였고 소수의 학자들만이 그 문제를 다루었으나 아직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단어 순서에 대한 토의는 매우 까다롭고 방대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이기는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기준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한정성 기준을 통해 상당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성서 히브리어 명사 문장에서 주어와 술어의 정체 파악을 위해 한정성을 기준으로 제시하는 학자들의 한정성의 등급 매김이 어느 정도 유효한가를 살피고 적합한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또한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기준이 한정성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어느 기준이 더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한정성의 등급 매김을 결정할 때 형태적인 요소만으로 등급을 정한 기존의 등급 매김 외에도 어떤 요소들이 보다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1.2. 선행 연구

1.2.1. 국외 선행 연구

한정성에 관한 연구는 일반 언어학계에서는 이미 크리스토퍼슨(A. Christophersen) 이래 많은 학자들에 의해 선행되었으나 성서 히브리어 학계에서 한정성을 연구한 이들은 그리 많지 않다. 밀러(Miller) 등 몇몇 학자들이 성서 히브리어 학계에서 한정성을 언급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¹⁰⁾ 벤다비드(Bendavid)는 그의 책에서 한정성이란 주제로 무려 62페이지나 할애하여 다루었지만 그의 초점은 한정성과 주어, 술어의 정체 파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성서 히브리어와 미슈나 히브리어와의 관계에 있다.¹¹⁾ 히브리어 학계에서 주어와 술어의 정체 파악과 관련하여 한정성의 등급을 언급한 이들은 앤더슨(F. I. Andersen), 제네트(W. D. Janet), 글리너트(L. Glinert) 세 사람이다. 그 중 앤더슨과 제네트는 성서 히브리어를 취급하였고 글리너트는 현대 히브리어를 취급하였다.¹²⁾ 그들이 제시하는 한정성의 등급 매김은 각각 19가지, 10가지, 7가지로 동일하지 않으며 그들의 등급 매김은 단어의 형태에 따른 것이지만 본 연구와 관련하여 많은 도움을 준다.

10) C. L. Miller, "Pivotal Issues in Analyzing the Verbless Clause", C. L. Miller, ed., *The Verbless Clause in Biblical Hebrew Linguistic Approaches* (Indiana: Eisenbrauns, 1999), 3-17.

11) A. Bendavid, *Biblical Hebrew and Mishnaic Hebrew* (written in Hebrew) (Tel-Aviv: Dvir Co. Ltd, 1971), 630-691.

12) F. I. Andersen, *The Hebrew Verbless Clause in the Pentateuch* (New York: Abingdon Press, 1970); W. D. Janet and E. Talstra, "Paradigmatic and Syntagmatic Features in Identifying Subject and Predicate in Nominal Clauses", C. L. Miller, ed., *The Verbless Clause in Biblical Hebrew Linguistic Approaches* (Indiana: Eisenbrauns, 1999), 133-185; L. Glinert, *The Grammar of Modern Hebre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1.2.2. 국내 선행 연구

국내 성서 히브리어 학계에서는 최근 성서 히브리어를 전공한 신진학자들이 소수 등장하였으나 명사 문장과 관련하여 한정성을 다룬 이들은 아직 찾아볼 수 없다.

국내에서의 한정성에 관한 연구는 일반 언어학계에서만 다루어졌다. 이정민 [(비)한정성/(불)특정성 대 화제(Topic)/초점, 『국어학』 22, 1992] 등이 본 주제와 관련된 연구를 하였고 강신이 “현대몽골어의 어순에 관한 연구(『몽골학』 16호, 2004)”에서 한정성이 현대몽골어의 어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언급했다.¹³⁾ 하지만 우리말이나 몽골어는 관사가 없는 까닭에 한정성의 적용 방식이 히브리어와 같은 관사가 있는 언어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본 연구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1.3. 연구 방법

성서 히브리어에 대한 많은 이론들은 충분한 자료를 기초하지 않은 이론으로만 그치는 경우가 많다. 2-3천년 전의 언어를 불충분한 자료에 근거한 언어적 이론만으로 추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위험성도 매우 높다. 아무리 뛰어난 학자라도 그 학자의 직감을 신뢰하기란 때론 어렵다. 어떠한 이론도 예외 없는 이론은 없다고 보며 그 예외들은 늘 반론의 빌미를 제공한다. 또한 동일한 주제를 놓고 서로 상반된 이론이 등장하며 학자들의 일반적인 동의를 얻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방법을 중요한 도구로 사용한다.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한 통계적인 분석은 이론적이고 추상적이고 예측에 근거한 분석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잘못된 결론으로 도출될 위험성도 감소된다. 통계적 방법에서는 자료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생명이다. 부정확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자료에 근거한 통계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통계처리 과정에서 실수나 잘못된 통계처리 방법의 사용 또한 위험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자료에 근거한 통계적 방법을 통한 접근은 이론적인 추론을 통한 접근보다는 훨씬 더 사실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자료에 대한 정리와 분석을 실시하였다.

13) 이정민, “(비)한정성/(불)특정성 대 화제(Topic)/초점”, 『국어학』 22 (1992), 397-424; 강신, “현대몽골어의 어순에 관한 연구”, 『몽골학』 16 (2004), 19-36.

(1) 1단계

열왕기상 1-10장과 역대하 1-10장, 총 20장에서 명사 문장(224 문장)과 하야 문장(85 문장) 총 309 문장을 1차적으로 뽑아 술어의 의미에 따라 분류를 해 보았다.¹⁴⁾ 명사 문장과 하야 문장에서 술어가 가지는 의미에 따라 문장을 분류해 보면 크게 다음과 같은 다섯 개의 범주가 가능하다: ‘이다’, ‘있다’, ‘되다’, ‘동사적 분사’, ‘특수절’.¹⁵⁾

이 중 특수절은 주어와 술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제외시켰으며, ‘이다’의 의미를 갖지 않는 나머지, 즉 ‘있다’, ‘되다’, ‘동사적 분사’ 등은 심층 구조적으로 볼 때 그 성격이 명사보다는 동사에 가깝고 동사는 모든 범주 중에서 한정성이 가장 약하다고 보기 때문에 한정성의 분석에 별 의미를 주지 못한다고 생각되어 제외시켰다. 따라서 명사 문장과 하야 문장에서 ‘이다’의 의미만을 갖는 문장을 본 연구를 위해 분석해야 할 문장의 범주에 넣었다.

(2) 2단계

‘이다’의 의미를 갖는 문장을 가지고 2차 분석을 할 때 한정성에 초점을 두고 주어, 술어의 문법적 범주, 그리고 필자가 결정한 한정성의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정리하였다. 이 단계에서 주어, 술어를 선정할 때 두 가지 기준, 즉 ‘한정성’과 ‘주어진/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각각 따로 정리를 해 보았다:

- 가) 한정성이 높은 것은 주어, 한정성이 낮은 것은 술어
- 나) 주어진, 혹은 알려진 정보이면 주어, 새로운 정보이면 술어

(3) 3단계

‘이다’의 의미를 갖는 문장에서의 주어, 술어의 범주와 몇몇 학자들의 한정성의 등급 매김을 비교해 보았다. 이곳에서는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단이

14) 명사 문장과 ‘하야 문장’은 표면구조가 뚜렷이 차이가 나지만 여기서 ‘하야 문장’을 포함시킨 이유는 ‘하야 문장’ 가운데는 그 속성상(심층구조상) 명사 문장과 동일한 문장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열왕기상과 역대하를 선정한 이유는 두 시대(표준성서 히브리어 시대와 후기성서 히브리어 시대)에 따른 차이점이 있는가를 조사해 보기 위함이다. 물론 열왕기서와 역대서가 두 시대를 대변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으나 두 시대의 성서 히브리어 언어는 ‘단어’의 사용 빈도수 면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러한 차이가 각 시대에 속하는 성경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시대적인 구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15) 여기서 ‘특수절’이란 ‘יהי+시간표현’ 등과 같은 특수한 절을 가리킨다. 예) יהי מקץ ארבעים וְיָהי יום וַיִּפְתַּח נֹחַ אֶת-חַלּוֹן הַתֵּבָה אֲשֶׁר עָשָׂה (창 8:6)

되어 오경에서의 문장들을 추가하여 조사해 보았다.¹⁶⁾ 본 조사에서 어떤 학자의 한정성 등급 매김이 보다 더 유효한가를 살펴보았다.

(4) 4단계

이 단계에서는 세 가지 분석을 하였다.

첫째, 주어와 술어의 한정성이 비슷해 보이는 것은 따로 모아 분석하였다.

둘째, 주어, 술어 모두 주어진 정보이거나 모두 새로운 정보일 경우도 따로 모아 분석하였다.

셋째, 앞에서 언급한 주어와 술어를 결정하는 두 가지 기준(‘한정성’과 ‘주어진/새로운’)을 가지고 비교 분석해 보았다.

자료 수집과 분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 관련 소프트웨어들인 어코던스, 바이블웍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 중요한 도구로 사용될 것이다. 또한 필요할 경우 통계 전문 소프트웨어인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가 사용될 것이다. 이러한 여러 컴퓨터 프로그램들은 수백 개의 문장을 조사하고 정리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들이며 통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최소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2. 한정성 기준

2.1. 한정성의 의미

한정성이란 무엇인가? ‘한정적이다’, ‘비한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우선 ‘한정성’(definiteness)이란 말과 ‘한정적’(definite), 혹은 ‘수식적’(determined)이란 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전자는 보다 의미론적이고 후자는 보다 문법적이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는 ‘한정적이다’, ‘비한정적이다’와 같이 이분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으나 전자의 경우는 무엇이 얼마나 한정적인가와 같이 한정성의 정도를 논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한정성’이란 용어의 개념은 ‘분명성’, ‘명료성’, ‘부동성’ 등과 비슷한 개념이다. 즉, 얼마나 한정적이나 하는 것은 얼마나 분명하고 선명하고 확고부동한가 하는 것과 흡사한 개념이라는 것이다.¹⁷⁾

16) 이곳에서는 오경의 각권에서 각각 1-10장, 총 50장에서 439 문장을 샘플로 선별하여 작업을 하였다.

17) 일반 언어학계에서 주어와 술어와 관련하여 한정성을 언급하는 이들은 한정성을 이분법적으로 보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한정적인 것을 주어와 연결시키고 비한정적인 것을 술어

따라서 우리는 한정성에 관해 논할 때 ‘한정성이 몇 % 정도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필자는 “한정성이란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라 혼합적인 것이며 수량적인 것이다”라고 본 체스터먼과¹⁸⁾ “히브리어는 다중한정성(polydefinites) 체계를 이루고 있다”고 한 위트너의 견해에¹⁹⁾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렇다면 한정성의 정도는 어떻게 결정하는가? 이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이다. 한정성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며 주관적일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위해 우리는 한정성의 정도를 언급하고 결정해야만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정성의 정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자의 견해와 가장 흡사한 호킨스의 화용론적-의미론적(pragmatic-semantic) 방법론을 따르고자 한다.²⁰⁾ 즉 한정성의 정도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도구는 화자(혹은 기록자)-청자(혹은 독자)의 정체, 그들의 이전 대화(혹은 기록)와 공유된 지식,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과 맥락 등이다.²¹⁾ 따라서 한정성의 정도를 결정함에 있어 청자 혹은 독자의 감각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다.²²⁾

2.2. 한정성 기준으로서의 등급 매김

2.2.1. 한정성의 등급 매김을 제시한 히브리어 학자

와 연결시킨다. 성서 히브리어 학계에서도 한정성을 언급하는 이들은 보다 한정적인 것이 주어이고 보다 덜 한정적인 것이 술어라는 견해에 동의한다. 다음을 보라: C. L. Miller, “Pivotal Issues in Analyzing the Verbless Clause”; R. Buth, “Word Order in the Verbless Clause: A Generative-Functional Approach”; T. Muraoka, “The Tripartite Nominal Clause Revisited”, C. L. Miller, ed., *The Verbless Clause in Biblical Hebrew Linguistic Approaches* (Indiana: Eisenbrauns, 1999), 204.

18) A. Chesterman, *On Definiteness. A Study with Special Reference to English and Finnis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1. 그는 비록 영어와 핀란드어를 중심으로 분석을 했지만 한정성에 대한 기본 개념은 바로 이해했다고 본다. 그는 영어에서의 관사를 한정성의 정도에 따라서 가장 비한정적인 것에서부터 가장 한정적인 것까지 다섯 등급으로 나누었다(182쪽).

19) J. Shuly Wintner, *Definiteness in the Hebrew Noun Phrase*, *Linguistics* 36 (2000), Institute for Research in Cognitive Science, University of Pennsylvania, 319.

20) 여기서 호킨스의 방법론을 거론한 것은 그의 이론 전체를 동의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성의 정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의 방법론을 채택하기 위함이다.

21) J. A. Hawkins, *Definiteness and Indefiniteness. A Study in Reference and Grammaticality Prediction* (London: Croom Helm, 1978), 17, 108 참조. 예를 들어 열왕기상 3:22의 ‘산 자’와 ‘죽은 자’는 상황과 맥락이 없다면 한정성이 매우 낮을 수 있지만 화자의 정체, 이전 대화, 공유된 지식 등을 고려한다면 한정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 *Ibid.* 17 참조.

히브리어 학자들 중 한정성의 정도에 대해 언급한 학자는 세 사람이다.²³⁾ 이 세 학자는 모두 일반 언어학계에서의 한정성에 대한 정의를 따르지 않고 형태적인 기준으로만 한정성의 등급 매김을 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들의 등급 매김과 자료에 따른 적합성 평가는 다음과 같다.

2.2.1.1 앤더슨(F. I. Andersen)

앤더슨은 동사 없는 문장에서의 주어, 술어의 범주를 다음과 같이 19개로 분류하고 있다²⁴⁾:

- (1) 대명사 pronoun
- (2) 고유명사 proper noun (person or place name)
- (3) 고유명사구 construct phrase with proper noun
- (4) 한정 명사 (정관사 + 명사) definite noun (article plus noun)
- (5) 한정 명사구 construct phrase with definite noun
- (6) 한정분사 definite participle
- (7) 한정수사 definite numeral
- (8) 명사적 구조 nominalized construction
- (9) 대명사 접미 명사(명사+대명사 접미사) suffixed noun (noun + pronoun suffix)
- (10) 대명사 접미 명사구 construct phrase with suffixed noun
- (11) 비한정분사(구) indefinite participle (phrase)
- (12) 비한정 명사 indefinite noun
- (13) 비한정 명사구 construct phrase with indefinite noun
- (14) 비한정수사 indefinite numeral
- (15) 부분사 구 partitive phrase (min + noun)
- (16) 부정사(구) infinitive (phrase)
- (17) 부사 adverb

23) 벤다비드(A. Bendavid)는 그의 책(*Biblical Hebrew and Mishnaic Hebrew-written in Hebrew*)에서 45장 전체를 ‘한정성’이라는 주제로 무려 62페이지(630-691)나 다루고 있지만 마지막 부분에서(p. 691) 한정성의 정도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할 뿐 구체적인 목록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24) F. I. Andersen, *The Hebrew Verbless Clause in the Pentateuch* (New York: Abingdon Press, 1970), 109, 표1. 이곳에서 그는 한정성의 정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범주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한정성에 관한 그의 언급(32쪽)을 보면 ‘한정성의 하향적 단계’(the descending scale of definiteness)라는 표현을 하는 것으로 보아 한정성의 정도를 의미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18) 전치사구 prepositional phrase

(19) 의문사 interrogative

그는 이러한 19개의 범주 안에서 다시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개의 범주로 나눈다²⁵⁾: (1) 한정적 (1-8번), (2) 중간적 한정 (9-10번), (3) 비한정적 (11-19번).

앤더슨의 등급 매김을 본 연구의 방법론에 따라 적합성 여부를 조사해 보았다. 조사된 총 578개의 문장 중 앤더슨의 한정성 기준에 따른 주어, 술어 선정에 문제가 없는 구절이 535 문장이므로 앤더슨의 한정성 기준의 적합성은 92.6%(535/578)로 나타났다.²⁶⁾

앤더슨의 등급 매김에서 문제가 있는 구절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 네 구절은 지시대명사가 술어로 사용된 경우인데 이 구절들은 앤더슨 뿐만 아니라 제네트, 글리너트의 한정성 등급 매김과도 적합하지 않는 구절들이다.

(예1) 왕상 4:2

וְאֵלֶּה הַשָּׂרִים אֲשֶׁר־לוֹ עֲרִיָּהוּ בֶן־צְדוֹק הַכֹּהֵן

그에게 속한 관리들은 다음과 같다. 사독의 아들 제사장 아사라

(예2) 왕상 4:8

וְאֵלֶּה שְׁמוֹתֵם בֶּן־חוּר בְּהַר אֲפָרַיִם

그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에브라임 산지에 벤홀

(예3) 왕상 7:28

וְזֶה מַעֲשֵׂה הַמְּכוּנָה מִסְגֵּרַת לָהֶם וּמִסְגֵּרַת בֵּין הַשְּׁלָבִים

그 받침대의 작업은 다음과 같았다. 받침대에는 테가 있었고 테는 지지대 사이에 있었다.

(예4) 왕상 9:15

25) Ibid. 32-33.

26) ‘578 문장’은 1.3항 연구 방법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를 위해 분석해야 할 문장은 명사 문장과 하야 문장 중 ‘이다’의 의미만을 갖는 문장에 국한시켰으므로 열왕기상과 역대하의 명사 문장과 하야 문장, 총 309 문장 중 ‘이다’의 의미를 갖는 139 문장과 모세 오경에서 ‘이다’의 의미를 갖는 439 문장을 합친 수치이다. 여기서 ‘문제가 없는 구절’이라 함은 앤더슨의 등급 매김에 따른 주어와 술어의 선정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기준인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준과 충돌하지 않는 구절을 뜻한다.

וְזֶה דְּבַר-הַמֶּלֶךְ אֲשֶׁר-הֶעֱלָה הַמֶּלֶךְ שְׁלֹמֹה
 솔로몬 왕이 부여한 노역은 이러하다.

이 구절들의 지시대명사는 앞에 나온 것을 지시하는 지시성이 매우 약하며 오히려 앞으로 나올 것을 예견해 주는 성격이므로 그 한정성은 매우 낮다. 코고트는 이러한 지시대명사를 ‘역행대용적 지시대명사(cataphoric pronoun)’, 혹은 ‘선행적 지시대명사(precedence pronoun)’로 부르지만²⁷⁾ 본 연구에서는 그것을 ‘부사적 지시대명사(adverbial pronoun)’로 지칭하며 한정성에 대해 취급할 때 부사와 같은 급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본다.
 위의 네 구절 외에 앤더슨의 기준에 어긋나는 구절은 열왕기상 6:24이다.

(예5) 왕상 6:24

וְהָמֹשׁ אַמּוֹת כִּנְף הַכְּרוֹב הָאֶחָת וְהָמֹשׁ אַמּוֹת כִּנְף הַכְּרוֹב הַשֵּׁנִית עֶשְׂרֵי אַמּוֹת
 מִקְצוֹת כִּנְפָיו וְעַד-קְצוֹת כִּנְפָיו

그 그룹의 한 날개는 5 규빗이고 그 그룹의 다른 날개도 5 규빗이며 한 날개 끝에서부터 다른 날개 끝까지가 10 규빗이다.

예5에서 ‘한 날개 끝에서부터 다른 날개 끝까지’라는 전치사구가 주어이며 ‘10 규빗’이라는 비한정 명사구가 술어이다. 앤더슨의 한정성 등급 매김에 의하면 전치사구는 ‘의문사’ 바로 전인 18번째 위치하고 있으며 비한정 명사구는 13번째 위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정성의 등급이 5단계나 낮은 전치사구가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오경의 명사 문장과 하야 문장 총 439 문장을 추가로 조사해 본 결과 앤더슨의 한정성 기준에 어긋나는 구절들은 다음과 같다:

주어-고유명사구, 술어-고유명사	창 4:22(וְאַחֲזֵת תּוֹבֵל-קַיִן נְעֻמָּה)을 포함하여 총 26 문장.
주어-한정 명사, 술어-고유명사구	민 2:5(וְהַחֲנִים עָלָיו מִטָּה וְשִׁכְרָה), 2:12, 2:27 - 3 문장.
주어-한정 명사구, 술어-고유명사	창 2:11(שֵׁם הָאֶחָד פִּישׁוֹן), 2:13, 2:14, 4:19(2번), 출1:15(2번) - 7 문장.

27) S. Kogut, *Syntax and Exegesis. Studies in Biblical Syntax as Reflected in Traditional Jewish Exegesis* (written in Hebrew) (Jerusalem: Magnes Press, 2002), 228.

주어-접미 명사구, 술어-고유명사

창 4:21(לְבָנָיו יְהוּדָה וְיִשָּׂשכָר וְיִזְבָּח וְיַחֲזֵק וְיִזְבֵּן), 10:25 - 2
문장.

앤더슨은 대명사 접미가 붙는 접미 명사를 9번 등급과 10번 등급에 두었으며 대명사 접미 명사를 중간적 한정성(the intermediate definiteness of a suffixed noun)으로 표현하여 한정적일 수도 있고 비한정적일 수도 있다고 한다. 그의 분류 기준에 의하면 ‘야곱의 아들들’은 고유명사구이므로 3번 등급에 들어가고 ‘그의 아들들’은 대명사 접미 명사이므로 9번 등급에 들어간다. 그러나 그 둘은 의미적으로 동일한 지시물을 가리키므로 한정성의 등급에 차이가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앤더슨은 자신의 등급 기준에 맞춰 6 등급이나 차이를 두고 있다. 앤더슨의 등급 매김은 표면적 형태만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접미 명사가 중간적 등급에 분류되어야 한다면 3번 등급인 고유명사구와 5번 등급인 정관사구도 역시 중간적 등급에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앤더슨의 비한정적인 등급인 11번 등급부터 19번 등급까지도 문제가 많다. 비한정 수사(14번)가 부정사(16번)보다는 2등급이 높으며 부사(17번)보다는 3등급이 높으며 전치사구(18번)보다는 4등급이 높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2.2.1.2 제네트(Janet, W. D.)

제네트는 다음과 같이 한정성의 등급 매김을 10가지로 제시하고 있다²⁸⁾:

- (1) 대명사 접미사가 붙은 특정 단어 suffix on שׁ , עוֹד, הַה, אֵץ, locatives
- (2) 지시대명사 demonstrative pronoun
- (3) 인칭대명사 personal pronoun
- (4) 정관사구 definite noun phrase
- (5) 고유명사 proper noun; name
- (6) 비한정 명사구 indefinite noun phrase
- (7) 의문대명사 interrogative pronoun
- (8) 형용사 adjective
- (9) 전치사구 prepositional phrase
- (10) 처격, 처격 의문사 locatives; locative interrogative

28) W. D. Jane and E. Talstra, “Paradigmatic and Syntagmatic Features in Identifying Subject and Predicate in Nominal Clauses”, C. L. Miller, ed., *The Verbless Clause in Biblical Hebrew Linguistic Approaches* (Indiana: Eisenbrauns, 1999), 152.

그는 한정성의 정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 (1) 항상 주어인 구 유형 : 1번
- (2) 주어 혹은 술어가 될 수 있는 구 유형 : 2-8번 (그는 8번 쪽으로 갈수록 술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 (3) 항상 술어인 구 유형 : 9-10번

또한 그는 주어와 술어는 자동적으로 위에 열거된 도식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며 그 외의 경우 문맥에 대한 독자의 지식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²⁹⁾

제네트의 한정성 기준의 적합성은 98.6%(570/578)이다. 그러나 제네트의 목록에서 대명사 접미 명사가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열왕기상과 역대하에서 대명사 접미 명사가 주어로 사용된 경우(32 문장)와 술어로 사용된 경우(11 문장), 그리고 오경에서 대명사 접미 명사가 주어로 사용된 경우(59 문장)와 술어로 사용된 경우(9 문장), 총 111 문장을 제외시켜 계산할 경우 제네트의 적합성은 98.3%(459/467)가 된다.

한정성 등급 매김과 주어와 술어를 살펴볼 때 제네트의 기준과 어긋나는 구절들은 부사적 지시대명사를 포함한 앞의 네 구절과 열왕기상 6:24(예9) 외에 다음 한 구절이다.

(예6) 왕상 8:60

יְהוָה הוּא הָאֱלֹהִים

여호와가 하나님이다³⁰⁾ [주어-고유명사(여호와), 술어-한정 명사(그 하나님)]

모세 오경 중에서 제네트의 한정성 기준에 어긋나는 구절들은 다음과 같다:

주어-고유명사, 술어-한정 명사 신 4:35(יְהוָה הוּא הָאֱלֹהִים)

주어-고유명사, 술어- 한정 명사 신 4:39(יְהוָה הוּא הָאֱלֹהִים)

제네트의 한정성의 등급 매김에서 아쉬운 점은 대명사 접미 명사가 명사 문장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이에 대한 목록이 누락되어 있다는 것이다.

29) Ibid. 153.

30) 우리말에서는 ‘여호와’와 ‘하나님’이 모두 고유명사이지만 ‘하나님’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엘로힘)는 ‘정관사+일반명사(god)’이다.

2.2.1.3 글리너트(L. Glinert)

글리너트는 현대 히브리어 학자로서 한정성의 등급 매김을 언급하였다. 본 연구에서 글리너트를 포함시킨 이유는 현대 히브리어가 성서 히브리어에 기반을 둔 언어로서 성서 히브리어와 매우 유사하며 그의 한정성 개념과 등급 매김이 다른 두 성서 히브리어 학자의 이론들과 비교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³¹⁾

그는 술어가 명사일 경우에 국한시켜 주어의 한정성을 다음과 같이 7 등급으로 구분한다.³²⁾

- (1) 대명사 pronoun
- (2) 접미 명사 possessive definite noun
- (3) 고유명사 proper noun
- (4) 한정 명사 definite noun
- (5) 비한정 명사 indefinite noun
- (6) 불특정구 non-specific phrase
- (7) 종속절 subordinate clause

글리너트의 한정성 기준의 적합성은 96.2%(555/578)이다.

열왕기상과 역대하에서 부사적 지시대명사가 포함된 네 구절 외에 글리너트의 기준에 어긋나는 구절들은 다음 6구절이다: 주어-한정 명사, 술어-접미 명사 열왕기상 3:22, 3:23에 ‘כִּנִּי הַחַיִּי’ 등 여섯 구절.

모세 오경 중에서 글리너트 자신의 한정성 등급 매김과 적합하지 않는 구절들은 다음과 같다.

주어-한정 명사, 술어-고유명사구	민 2:5(עֲלִיּוֹ מִטָּה וְהַחֲנִים עִלְיָו וְשֹׁכֵר), 2:12, 2:27 - 3 문장.
주어-한정 명사구, 술어-고유명사	창 2:11(שֵׁם הָאָדָמַר פִּישׁוֹן), 2:13, 2:14,

31) 현대 히브리어는 19세기말 벤예후다(Eliezer Ben-Yehuda)가 성서 히브리어를 바탕으로 되살린 언어이기 때문에 어휘와 문법에 있어서 두 언어는 매우 흡사하다. 문장 구조 면에서 볼 때 눈에 띄는 차이는 현대 히브리어 동사 문장에서 ‘와우연속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명사 문장에서는 그 구조가 흡사하여 글리너트의 이론을 함께 평가하였다.

32) L. Glinert, *The Grammar of Modern Hebre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170.

	4:19(x2), 출1:15(x2) - 7 문장
주어-접미 명사구, 술어-고유명사	창 4:21(וַיִּשָּׂא אֶחָיו יוֹבֵל), 10:25 - 2 문장.
주어-고유명사, 술어-접미 명사	출 4:22(בְּנֵי בְכֹרֵי יִשְׂרָאֵל)

그에게 있어서 한정성의 등급은 주어, 술어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계사(copula)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에 의하면 계사는 상대적으로 덜 한정적인 주어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주어의 한정성이 낮으면 낮을수록 계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³³⁾ 그에게 있어서 특이할 만한 것은 접미 명사를 고유명사(3번)나 정관사(4번)보다도 더 높은 대명사 다음인 2번에 위치시키고 있다. 그는 접미 명사는 대명사 접미를 포함하기 때문에 대명사(1번)와 같은 것으로 본다.³⁴⁾

그는 종종 한정성의 등급을 ‘가볍다’, ‘무겁다’ 등의 무게로 표시하는데 이는 한정성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³⁵⁾ 또한 그는 한정성을 다룰 때의 미적 한정성과 문법적 한정성으로 구분하여 취급하였는데 이것도 매우 유용하다고 본다.³⁶⁾

2.2.1.4 세 학자의 등급 매김의 비교

앞에서 언급한 세 학자의 한정성의 등급 매김을 서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한정성의 등급	Andersen	Janet	Glinert
1	pronoun	suffix on אֵי, הנה, עור, עֵי, locatives	pronoun
2	proper noun	demonstrative pronoun	possessive definite noun
3	construct phrase with proper noun	personal pronoun	proper noun
4	definite noun	definite noun phrase	definite noun
5	construct phrase with	proper noun; name	indefinite noun

33) Ibid. 174.

34) Ibid. 170-171.

35) 예를 들어 ‘동사가 다른 모든 범주보다 한정성이 낮다’는 사실은 다른 모든 범주보다 동사가 가장 가벼운, 즉 가장 유동적이라고 하는 개념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다.

36) Ibid. 15.

	definite noun		
6	definite participle	indefinite noun phrase	non-specific phrase
7	definite numeral	interrogative pronoun	subordinate clause
8	nominalized construction	adjective	
9	suffixed noun	prepositional phrase	
10	construct phrase with suffixed noun	locatives; locative interrogative	
11	indefinite participle (phrase)		
12	indefinite noun		
13	construct phrase with indefinite noun		
14	indefinite numeral		
15	partitive phrase (min + noun)		
16	infinitive (phrase)		
17	adverb		
18	prepositional phrase		
19	interrogative		

위의 표에서 몇 가지 사실을 살펴 볼 수 있다.

- (1) 세 사람 모두 대명사는 한정성의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본다.
 - (2) 고유명사의 경우 앤더슨이 대명사 다음 두 번째로 한정성이 높다고 본 반면 글리너트는 대명사 접미 명사 다음에 두었고 제네트의 경우 대명사, 한정 명사(정관사) 다음에 둠으로 고유명사의 한정성을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본다.
 - (3) 한정 명사(정관사)의 경우 제네트는 대명사 다음에 두어 한정성을 높게 보고 글리너트가 가장 낮게 본다. 이것은 아마도 현대 히브리어가 인도-유럽어의 영향을 받아 정관사의 한정성이 낮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4) 가장 큰 차이는 대명사 접미 명사의 경우이다. 앤더슨은 그것의 한정성을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한 반면 글리너트는 대명사 다음 두 번째에 둘 정도로 한정성이 높은 것으로 보았으며 제네트의 경우 목록에서 제외되어 있다.
- 한정성의 등급 매김에 있어 그 기준이 공통적인 경우는 지시대명사와 인칭 대명사이다. 즉 대명사의 한정성을 가장 높은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나머지 등급의 경우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본다. 이를 통해 볼 때 대명사는 형태적인 기준이 될 수 있으나 나머지 형태는 형태적인 기준으로 삼기에 문

제의 소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2.2.2. ‘주어진/새로운 기준’ 과의 비교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서 히브리어 명사 문장에서 주어와 술어의 정체 파악에 대한 기준 중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받아들이는 기준은 두 가지이다. 그 중 ‘일반적인 주어, 술어의 정의에 따른 기준’은 주어와 술어의 정체 파악에 있어서 더 주관적인데 반해 ‘주어진/새로운 정보 기준’은 보다 객관적이다.³⁷⁾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정성 기준’과 ‘주어진/새로운 정보 기준’과의 비교를 통해 어느 기준이 보다 적합한지를 살펴본다. ‘주어진/새로운 기준’에서는 ‘주어진 정보’가 주어이며 ‘새로운 정보’가 술어로 분류되는데 주어와 술어가 모두 주어진 정보이거나 모두 새로운 정보인 경우에는 주어와 술어의 파악이 힘들다.

1) 주어, 술어 모두 알려진 정보인 경우(12개)³⁸⁾

(예7) 왕상 3:23

יָמַתּוּ בְנֵי

죽은 자가 당신의 아들이다

2) 주어, 술어 모두 새로운 정보인 경우(2개) - 왕상 6:20(2번)

(예8)

עֲשָׂרִים אַמָּה אָרְךָ וְעֶשְׂרִים אַמָּה רָחֵב

길이가 20 규빗이고 넓이가 20 규빗이다

위의 경우와 같이 주어진/새로운 기준으로 볼 때 주어와 술어가 모두 주어진 정보이거나 모두 새로운 정보일 경우에 주어, 술어를 결정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다른 기준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주어, 술어를 결정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이 경우의 적합성은 89.9%라 할 수 있다. 이 수치는 형태적인 기준만으로 한정성 기준을 삼은 세 학자들의 수치보다 낮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받아들이는 ‘주어진/새로운 기준’은 ‘한정성 기준’보다 적합성이 떨

37) 일반적인 주어, 술어의 정의에 따른 기준에 의하면 주어란 ‘무엇에 대해 말하는가’인데 전후 문맥이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무엇에 대해 말하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관성이 많이 작용할 수 있으나 ‘주어진/새로운 정보 기준’은 한 요소가 이미 주어진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이다.

38) 주어와 술어가 모두 알려진 정보인 12구절은 왕상 1:45, 3:22(4번), 3:23(4번), 3:26, 6:18, 8:60이다.

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

2.3. 새로운 제안

본 연구에서는 한정성의 등급 매김을 지나치게 세분화시키는 데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언급한 바와 같이 세 사람의 등급 매김에서 대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는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한정성의 등급에 대한 기준도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정성의 등급을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만 구분한다.

- (1) 한정성이 매우 높은 것(화자, 청자 혹은 독자가 지시물이 무엇인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
- (2) 한정성이 보통인 것(언급되고 있는 지시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는 나타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을 수 있는 것)
- (3) 한정성이 매우 낮은 것(지시물이 무엇인지 불확실한 것)

한정성의 정도가 형태적인 기준에 의해서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다음 예들을 보라.

(예9) 왕상 6:32

וַשְׁתִּי בְּלִחוֹת עֲצֵי־שֹׁמֶן וְקָלַע עֲלֵיהֶם מִקְלָעוֹת כְּרוּבוֹים וְתַמְרוֹת וּפְטוֹרִי

צִצִּים וְצִפָּה זָהָב וְנָרָד עַל־הַכְּרוּבוֹים וְעַל־תַּמְרוֹת אֶת־הַזָּהָב

두 개의 문은 감람나무로 되어 있었는데 그는 그 위에 그룹들과 종려나무들과 핀 꽃 부조들을 새기고 금으로 입혔으며 그 그룹들과 그 종려나무 위에 금박을 두드려 넣었다.

(예10) 왕상 7:28

זֶה מַעֲשֵׂה הַמִּכּוּנָה מִסְגֶּרֶת לָהֶם וּמִסְגֶּרֶת בֵּין הַשְּׁלָבִים

그 받침대의 작업은 다음과 같았다. 받침대에는 테가 있었고 테는 지지대 사이에 있었다.

위의 예9에서 ‘두 개의 문’과 예10에서 ‘테’는 형태적, 표면적으로 비한정 명사로 한정성이 낮지만 화자(기자)나 청자(독자)가 어떤 문과 테를 언급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록 그 명사에 정관사가 없더라도 실질적인 한정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예11) 왕상 6:24

וְחֹמֶשׁ אַמּוֹת כִּנְף הַכְּרוֹב הָאֶחָת וְחֹמֶשׁ אַמּוֹת כִּנְף הַכְּרוֹב הַשְּׁנִית עֶשֶׂר
אַמּוֹת מִקְצוֹת כְּנָפָיו וְעַד־קְצוֹת כְּנָפָיו

그 그룹의 한 날개는 5 규빗이고 그 그룹의 다른 날개도 5 규빗이며 한 날개 끝에서부터 다른 날개 끝까지가 10 규빗이다.

앤더슨과 제네트는 전치사구의 한정성을 매우 낮게 보았지만 예11에서의 ‘한 날개 끝에서부터 다른 날개 끝까지’라는 전치사구는 화자나 청자 모두에게 무엇을 언급하는지 분명한 그림을 그려주기 때문에 한정성이 매우 높다.

(예12) 왕상 9:22

וּמִבְנֵי יִשְׂרָאֵל לֹא־נָתַן שְׁלוֹמָה עֶבֶד כִּי־הֵם אֲנָשֵׁי הַמְּלָחָמָה וְעִבְדֵּיו וְשָׂרָיו וְשֹׁלְטָיו
וְשָׂרֵי רֶכֶב וּפָרָשָׁיו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종으로 삼지 않았는데 그들이 전쟁의 사람들이며 그의 신하들이며 그의 방백들이며 그의 지휘관들이며 그의 병거 대장들이며 그의 기병들이기 때문이다.

예12에서 ‘그 전쟁의 사람들’은 정관사가 포함된 한정 명사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정성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언급한 바와 같이 필자는 한정성의 등급을 세 가지로 나누고 한정성이 매우 높은 것은 3점, 한정성이 보통인 것은 2점, 한정성이 매우 낮은 것은 1점의 점수를 주어 분류를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주어(3) : 술어(1) = 261구절 예) 대하 2:5 אֱלֹהֵינוּ יְהוָ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주어(3) : 술어(2) = 159구절 예) 왕상 3:22 בְּנֵי הַחַיִּי 그 산 자가 내 아들이다

주어(3) : 술어(3) = 7구절 예) 왕상 2:22 הוּא אָחִי הַגָּדוֹל 그는 나의 큰 형제이다

주어(2) : 술어(1) = 151구절 예) 대하 5:13 לְעוֹלָם חֲסִדוֹ 그의 인자는 영원하다

위의 결과를 보면 주어와 술어의 한정성이 모두 낮은 경우는 한 구절도 없었으며 술어의 한정성이 주어의 한정성보다 더 높은 경우도 발견되지 않았

다. 주어의 한정성이 술어의 한정성보다 더 높은 경우에는 주어와 술어의 선정에 어려움이 없었으나 주어와 술어의 한정성이 동일한 경우(7구절)에 주어와 술어의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필자의 한정성 기준의 적합성은 98.8%이다.³⁹⁾

(예13) 왕상 1:45

הוא הקול אשר שמעתם

그것이 당신들이 들은 소리이다

(예14) 신 4:39

יהוה הוא האלהים

정녕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예13과 14의 경우를 보면 형태적으로나 심층적으로 볼 때 주어와 술어 모두 한정성이 매우 높은 경우인데 이런 경우 필자가 나눈 세 가지 등급만을 가지고는 주어와 술어를 선정하기가 쉽지 않다. 형태적인 기준만을 가지고 주어와 술어를 선정한다면 예11의 경우와 같이 주어가 지시대명사나 인칭대명사인 경우는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예12와 같이 ‘고유명사’인 경우 어려움은 커진다. 앞에서 언급한 세 학자의 경우에도 지시대명사나 인칭대명사의 한정성은 매우 높게 설정되었지만 고유명사의 한정성은 서로 다른 등급에 설정된 것을 볼 수 있다. 주어와 술어의 한정성이 매우 높은 경우 대부분이 주어와 술어 모두 ‘주어진’ 정보이므로 ‘주어진/새로운’ 기준 또한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경우 가능한 해결책은 단어 순서라 생각한다. 성서 히브리어 명사 문장에서 일반적으로 술어가 비한정적일 경우의 단어 순서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주어와 술어가 모두 매우 한정적일 경우에는 주어가 술어보다 앞서는 경향이 있다.⁴⁰⁾

본 연구에서는 성서 히브리어 문장에서 단어의 형태는 한정성과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한정성의 등급 매김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지시대명사나 인칭대명사의⁴¹⁾ 경우는 앞의 세 학자의 견해

39) 성서 히브리어의 대표적인 두 시대인 표준성서 히브리어 시대와 후기성서 히브리어 시대에 따른 차이를 확인해 보기 위해 두 시대를 대표하는 열왕기상과 역대하를 선정하여 조사해 보았으나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시대적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40) 성서 히브리어 명사 문장에서의 단어 순서에 대한 논의는 매우 복잡하고 본 주제에서 벗어나므로 여기서는 논하지 않도록 하겠다.

41) 인칭대명사의 경우 1인칭, 2인칭 단수 인칭대명사가 3인칭이나 복수 인칭대명사보다는 한정성이 보다 더 높은 것 같다.

와 마찬가지로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지시하는 지시성이 강하기 때문에 한정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비한정 명사, 형용사, 명사적 분사, 전치사구, 수사, 부사, 의문사구 등은 몇몇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한정성이 낮은 것에 속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대개의 경우 지시물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고유명사, 한정 명사(정관사), 대명사 접미 명사의 경우에 한정성의 등급 매김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이것들은 문맥과 상황에 따라서 지시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대충 윤곽은 드러나지만 무엇인지 파악하기 힘든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한정성의 등급 매김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도구는 단어의 형태적인 기준뿐 아니라 화자-청자의 정체, 그들의 이전 대화(혹은 기록)와 공유된 지식,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과 맥락 등이라고 본다.⁴²⁾

3. 결론

한정성의 등급 매김을 한 세 명의 히브리어 학자와 주어진/새로운 기준과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시한 한정성의 기준의 적합도를 조사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순으로 나타났다:

제네트 98.6%, 글리너트 96.2%, 앤더슨 92.6%, 주어진/새로운 기준 89.9%, 새로운 제안 98.8%.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자료와 분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1) 한정성의 등급 매김을 형태적인 구조에 따라 고정화 시키는 것은 위험한 일이지만 유용한 기준은 될 수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형태적 구조에 따른 한정성의 등급 매김은 주어진/새로운 기준보다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여지가 있는 앤더슨의 경우에서조차 그 적합성(92.6%)이 오히려 주어진/새로운 기준의 적합성(89.9%)보다 높았다.

42) 동일한 문법 구조를 갖더라도 본 연구의 기준에 의하면 한정성 등급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내 아들”이란 표현은 앤더슨의 기준에 의하면 항상 ‘중간적 한정성’에 들어가야 하지만 필자의 기준에 의하면 한정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아들이 70명인 경우 이전의 언급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내 아들”이란 표현은 한정성이 매우 낮을 것이다. 반대로 아들이 독자인 것이 전후 문맥에서 분명히 알려진 상황이라면 “내 아들”이란 표현은 한정성이 매우 높다. 두 명 중 “내 아들”을 밝혀내야 하는 상황에서(창27:21 - “네가 내 아들에서냐?”, 왕상3:22 - “그 산 자가 내 아들이다” 등) “내 아들”의 한정성은 높지도, 낮지도 않은 보통으로 분류될 수 있다.

(2) 한정성의 의미는 전후 문맥이나 여러 가지 상황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주어, 술어를 결정하는 두 기준(한정성과 주어진/새로운 기준)과 상관 관계가 있으나 이 두 기준 중 한정성 기준이 주어진/새로운 기준보다 더 유용한 기준으로 나타났다.

(3) 한정성의 등급 매김을 결정할 때는 단어의 형태뿐 아니라 화자-청자의 정체, 그들의 이전 대화(혹은 기록)와 공유된 지식,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과 맥락 등을 고려해야 한다.

<주요어>(Keywords)

한정성, 성서 히브리어, 명사 문장, 주어와 술어, 단어 순서
Definiteness, Biblical Hebrew, Nominal Sentence, Subject and Predicate,
Word Order

(투고 일자: 2011. 8. 21, 심사 일자: 2011. 8. 25, 게재 확정 일자: 2011. 9. 28.)

<참고문헌>(References)

- 강신, “현대몽골어의 어순에 관한 연구”, 『몽골학』 16, 2004.
- 이정민, “(비)한정성/(불)특정성 대 화제(Topic)/초점”, 『국어학』 22, 1992.
- Andersen, F. I., *The Hebrew Verbless Clause in the Pentateuch*, New York: Abingdon Press, 1970.
- Bendavid, A., *Biblical Hebrew and Mishnaic Hebrew* (written in Hebrew), Tel-Aviv: Dvir Co. Ltd, 1971.
- Buth, R. “Word Order in the Verbless Clause: A Generative-Functional Approach”, C. L. Miller, ed., *The Verbless Clause in Biblical Hebrew Linguistic Approaches*, Indiana: Eisenbrauns, 1999.
- Chesterman, A., *On Definiteness. A Study with Special Reference to English and Finnis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 Glinert, L., *The Grammar of Modern Hebre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 Hawkins, J. A., *Definiteness and Indefiniteness. A Study in Reference and Grammaticality Prediction*, London: Croom Helm, 1978.
- Janet, W. D. and Talstra, E., “Paradigmatic and Syntagmatic Features in Identifying Subject and Predicate in Nominal Clauses”, C. L. Miller, ed., *The Verbless Clause in Biblical Hebrew Linguistic Approaches*, Indiana: Eisenbrauns, 1999.
- Kogut, S., *Syntax and Exegesis. Studies in Biblical Syntax as Reflected in Traditional Jewish Exegesis* (written in Hebrew), Jerusalem: Magnes Press, 2002.
- Miller, C. L., “Pivotal Issues in Analyzing the Verbless Clause”, C. L. Miller, ed., *The Verbless Clause in Biblical Hebrew Linguistic Approaches*, Indiana: Eisenbrauns, 1999.
- Muraoka, T., “The Tripartite Nominal Clause Revisited”, C. L. Miller, ed., *The Verbless Clause in Biblical Hebrew Linguistic Approaches*, Indiana: Eisenbrauns, 1999.
- Niccacci A., “Types and Functions of the Nominal Sentence”, C. L. Miller, ed., *The Verbless Clause in Biblical Hebrew Linguistic Approaches*, Indiana: Eisenbrauns, 1999.
- Shuly Wintner, J., *Definiteness in the Hebrew noun phrase*, Linguistics 36, Institute for Research in Cognitive Science, University of

Pennsylvania, 2000.

Zewi, T., “The Nominal Sentence in Biblical Hebrew”, G., Goldenberg and S. Raz, eds., *Semitic and Cushitic Studies*, Wiesbaden: Harrassowitz, 1994.

<Abstract>

**A Study on the Definiteness in the Nominal Sentences of
Biblical Hebrew: focusing on Andersen, Janet and Glinert's theories**

Prof. Sung-Dal Kwon
(Westminster Graduate School of Theology)

Research on nominal sentences of Biblical Hebrew has caused many debates among Biblical Hebrew scholars through the last several decades but there are still a lot of disagreements. First of all, scholars' different opinions are observed on the definition of 'nominal sentence,' and there are many other questions to be solved in connection with nominal sentences of Biblical Hebrew including word order in nominal sentences, three-component nominal sentences, copula, casus pendens, existential sentence, and the relation between nominal sentences and HYH sentences. In particular, it is quite important to identify the subject and the predicate in nominal sentences because it is essential for solving many other problems. In nominal sentences of Biblical Hebrew in which the word order is not fixed, it is very crucial to distinguish between the subject and the predicate.

This study discussed definiteness as a criterion for identifying the subject and the predicate in the nominal sentences of Biblical Hebrew.

This study attempted to answer a number of questions on definiteness as follows:

- (1) Can definiteness be a criterion for identifying the subject and the predicate in nominal sentences of Biblical Hebrew?
- (2) If yes, how important is the criterion of definiteness?
- (3) How valid is the rating of definiteness by a number of scholars suggesting definiteness as a criterion, and what is the desirable method for rating definiteness?

In this study, statistical methods were used as important tools. Compared to ones based on theoretical inference, approaches based on definite data using statistical methods can come much closer to the fact.

Through these statistical methods, we investigated scholars' definiteness rating and the author's rating in detail and drew the following conclusions:

(1) It is risky to fix the rating of definiteness according to morphological structure, but still definiteness can be a useful criterion. The usefulness of the criterion appeared to be higher than the adequacy of the ‘given/new’ criterion.

(2) As the significance of definiteness is connected to the context or various situations, the two criteria (definiteness and given/new information) are in correlation with each other. Between the two, definiteness can be more useful than the ‘given/new’ criterion.

(3) When rating definiteness, we need to consider not only the word form but also the identity of the speaker and hearer, previous dialogs (or records) and shared knowledge between them, the situation and context in which the story is told, etc.